

시편 32 편

읽으며 묵상하기¹ 성경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 설명을 참고하여 함께 묵상해 보세요.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다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용서 죄책감은 사회나 종교가 지운 짐에 불과하며,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은 여전합니다. 제힘으로 어찌해 볼 수도 없고 떨쳐 내지도 못합니다. 용서를 받는 과정은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꺼내 놓고 인정할 때(5 절) 하나님은 기꺼이 그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1 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역하는 죄를 없애 버리셔서 징벌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5 절) 본질적인 치욕을 제거하셔서 내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3, 4 절). 속속들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경험한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 없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¹ 팀 켈러, 시편 묵상

재갈과 굴레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돌아올 결과를 생각하며 이기적인 동기에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갈과 굴레로 다스려야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어리석은 노새와 같은 삶입니다(9 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은 '홍수'(6 절)처럼 힘겨운 한계를 허락하십니다. 엊그제 자녀들을 되돌리고 주님의 동행과 사랑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일종의 재갈과 굴레인 셈입니다. 빛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생각해 볼 질문들 1 번 질문 그리고 2-4 번 중 한 두 개의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세요.

1. 오늘 시편을 읽고 나누며 나의 마음에 가장 울림이 되는 단어나 표현은 무엇인가요?
2. *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정직한 고백을 회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어차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직한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죄의 용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와의 참다운 교제란 어떤 것일까요?
4. *** '홍수'와 같은 힘겨운 한계가 지나갈 때, 이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에 머무르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궤도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의 말로 기도하기

다시 시편 단락을 소리 내어 읽고, 이번에는 위의 묵상과 나눔을 바탕으로 나의 말로 기도합니다.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셔서 하나님께 정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저에게 고백할 일이 필요할 때 나와 주위에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돌아보고 나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 주세요...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고백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흥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를 둘러싼 모든 공포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어두움의 세력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건져지게 해
주세요,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여, 나의 갈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저를
보시고 훈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저를 단속하시고
끌어가신다는 사실에 순복하고 엎드리게 해
주세요, 저의 모든 반항하는 마음을 가셨가 주세요,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슬프지 않고 즐겁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게 해 주세요, 각자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성도간에 그리고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 주세요, 온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외칠 수 있게 해 주세요,
